2011시즌 신생팀 광주 FC를 비롯한 16개 구단이 프로축구 K-리그 우승컵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최만희 감독을 초대 사령탑으로 한 광주는 신생팀 돌풍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7개 구단 새 사령탑 맞이 프로축구 더 즐거워진다

프로축구가 광주 FC의 출범과 상무 불사조의 잔류에 힘입어 16개 구단으로 2011시즌을 맞이하게 된다. 2011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K-리그 16개 구단은 사령탑들의 변동속에 어느해보다 치열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새 시즌을 앞두고 '디펜딩 챔피언' FC 서울이 황보관호를 출항시켰고, 박항서 감독이 물러난 전남 드래곤즈는 정해성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 이외에 포항 스틸러스, 부산 아이파크, 경남 FC도 신임 사령탑이 팀을 지휘하고 있다.

지난 시즌 중반 허정무 감독을 영입했던 인천 유나이티드도 코치진 개편에 나섰고, 신생팀 광주 FC도 최만희 초대 감독을 중심으로 2011시즌 출격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선수 신·구 조화로 돌풍 준비

광주 최만희 감독

최만희 감독을 초대감독으로 한 광주 FC는 여범규 수석코치와 남기일, 김정수 코치 체제로 팀을 꾸렸다.

우선지명과 신인드래프트로 김동섭·김호남·박기동 등 젊은 일본파 선수를 영입했던 광주는 최근 수원 삼성의 수문장 박호진을 골키퍼 플레잉 코치로 선임하는 등 경험 있는 선수들을 불러들여 신·구조화를 통한 2011시즌 돌풍을 계획하고 있다.

강진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는 이달 하순부터 3주간 중국 쿤밍으로 전지훈련을 가 2011년을 위한 청사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운재 골키퍼 영입 '우승 꿈'

전남 정해성 감독

정해성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한 전남은 최문식 포항 2군 코치를 수석코치로 선임하고 조진호 제주 유나이티드 코치를 1군 코치로 앉혔다.

제라드 누스 피지컬 트레이너를 영입하는 등 새로운 코치진을 꾸린 전남은 '국민 골키퍼' 이운재와 2년 계약을 끝내며 염동균과의 골키퍼 이원체제도 완성했다.

5일 광양에 소집된 선수단은 내달 6일 일본 벳부로 건너가 20일까지 전지훈련을 갖고 우승을 향한 선전을 다짐한다.

코치진 물갈이 '챔피언 지키기'

서울 황보관 감독

황보관 감독에게 새로 지휘봉을 맡긴 '디펜딩 챔피언' 서울은 안익수 코치가 부산 감독으로 옮기면서 생긴 공백에 최용수 코치를 수석코치로 승격 시켰다. 나머지 코치들은 물갈이에 나서 2005~2006년 서울에서 선수 생활을 한 이기형 코치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한 신범철 골키퍼 코치를 불러들였다.

J리그 빗셀 고베 등에서 활약한 간노 아쓰시 피지컬 코치도 황보관 사단에 합류했다.

서울은 내달 6일부터 18일까지 일본 가고시마 캠프에서 전력 점검에 나선다.

브라질 모라또 영입 공격축구

경남 최진한 감독

조광래 감독에 이어 경남의 3대 감독이 된 최진한 감독은 진주 출신의 김판곤 코치를 수석코치로 불러들였다. 조광래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한 이후 경남을 이끌었던 김귀화 코치는 대구로 자리를 옮겼다.

브라질 출신의 유망주 모라또를 영입해 공격 라인을 가다듬은 경남은 오는 23일 전지훈련을 위해 터키 안탈리아로 출국한다.

코칭스태프 대폭 개각 새 각오

부산 안익수 감독

안익수 감독이 새로운 사령탑에 오른 부산도 대폭적인 코칭스태프 개각을 했다. 백종철 영진전문대 여자축구팀 감독을 수석코치로 선임한 안 감독은 일화 시절 정규리그 3연패를 이끌었던 이상윤 코치와 김인완 전 전남 2군 코치에게 코치직을 맡겼다.

부산 금정산에 올라 새해를 맞이했던 부산은 오는 15일 일본 오키나와로 건너가 전지훈련 일정에 돌입한다.

친정서 지휘봉 베스트 전력 꾸려

포항 황선홍 감독

황선홍 감독이 올 시즌부터 친정에서 지휘봉을 잡게 되면서 포항의 코칭스태프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황 감독과 부산에서 팀을 이끌었던 강철 수석코치와 윤희준 코치가 포항에서 의기투합했다.

현역 시절 포항에서 황 감독과 한솥밥을 먹었던 김일진 골키퍼 코치와 전남 코치 시절 호흡을 맞췄던 플라비오 피지컬 트레이너도 황 감독과 함께 2011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포항은 오는 29일부터 일본에서 베스트 전력을 꾸릴 예정이다.

월드컵 경험으로 6강 목표 진군

인천 허정무 감독

지난 시즌 도중 남아공 월드컵 16강을 지휘한 허정무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긴 인천은 서울로 자리를 옮긴 신범철 골키퍼 코치 자리에 브라질 출신 헤나시 바레토 코치를 앉혔다.

브라질 출신인 에베랄도 피에로티 피지컬 코치도 불러들이며 만반의 준비를 끝낸 인천은 6일 허정무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 서포터즈와 함께 마니산 등반에 나서 2011 선전을 다짐했다.

7일 괌에 캠프를 꾸린 인천은 오는 2월 11일까지 전지훈련을 갖고 6강 목표를 향한 진군을 하게 된다.